



대학의 서열화 · 시장화 그리고 중등교육의 정상화

조 옥 준 | 성동고 교사

I. 들어가는 글

전국 수학능력평가시험이 지난 6월 28일에 많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다. 나는 그 날 제 5교시 외 국어 영역인 영어 시험 감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많은 학생이 답안지 기표를 끝내고 자리에 엎드렸다. 60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이 많이 되었다.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가 넘었으니까 시험 시간 동안 잠도 다 잤을 것 같으니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몸을 비튼다. 그런데 내가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풀고 있는 학생은 우리 반 석차 일등인 학생 단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 33명을 열심히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들라면 흔히 '입시 위주의 교육'을 꼽곤 한다. 그런데 그때처럼 그 말을 뼈저리게 느껴 본 적이 없었다. 이 많은 아이들이 왜 대학교육을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가? 아니 솔직히 표현하면 대학교육을 받고 싶다고보다는 대학에 들어가 졸업장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학업과는 거리가 멀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호감'이라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반 33명의 소외된 아이들을 구할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방법이란 지금의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대학교육이 올바른 위상을 찾는 가운데 가능해질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대학의 문제점을 서열화와 시장화 속에서 살펴보면서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대학의 서열화 · 시장화

대학은 본래 상아탑의 역할을 해 왔다. 진리를 추구하고 한 사회가 고여 있거나 정체되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맡아 왔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대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속에서 배출되는 지식인은 그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대학에서 길러지는 지식인이 "과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 왔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의문은 지식인을 길러 내는 과정이 불공평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와 연·고대를 정점으로 한 서열 구조를 이루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질이 수학능력 점수에 따라 결정되

어 그 서열이 매겨져 있다. 서울대학교 설립 초기의 목적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지배 세력을 만들어 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한국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유학시켜 한국의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부분에 핵심 권력을 장악하게 한다. 이 속에서 많은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특혜를 받으면서 유학하고 돌아와 한국의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의 이론을 강단에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설립 초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엘리트들 키워 내는 과정이 서울대학교에 '입학' 했다는 것

만으로 주어진다는데 있다. 서울대학교가 아닌 세칭 3류 대학에 들어갔어도 그가 대학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입학'이라는 조건은 부차적인 요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 현실은 어떤 대학을 입학하느냐에 따라 학벌이 결정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서울대 출신들은 그 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동문들과 관계망을 형성한다. 우리 사회의 조직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공적인 일이 사석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석의 뒷 모임이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 통로

가 되는 것이다. 언젠가 신용하 교수가 '서울대학교 개혁에 관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울대학교 개혁론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는 서울대학교처럼 동문회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이 들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처음 교직에 발을 디뎠을 때, '사대 나왔어요?' 라고 묻기에, '네' 라고 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때의

사대라는 것은 서울사대의 약칭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교사들 대부분은 아마도 사범대학 출신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만 사대라는 것인지?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서울 사대 동문회만 존재한다. 이들 집단이 동문회라

“

서울대학교가 문제라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들을 가로막는데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보나 서울대학교 자체로 보나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다. 지금처럼 엘리트가 되는 것이 대학 '입학'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업 성취를 통해서 평가된다면 과연 서울대가 지금과 같은 독점적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

는 모임 속에서 학교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논하고 그 방향들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일들을 한다면 누가 동문회를 하는 것에 반대하겠는가? 현대 그들의 모임이 생산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있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서울대학교가 문제라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들을 가로막는데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전체로 보나 서울대학교 자체로 보나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다. 지금처럼 엘리트가 되는 것이 대학 '입학'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업 성취를 통해서 평가된다면 과연 서울대가 지금과 같은 독점적 권력을 가질 수 있

을까? 현재의 기형적인 대학 서열 구조가 타파되고 인맥·학맥이 아닌 실력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모든 학생을 점수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는 한, 지금 잠자고 있는 33명의 학생을 깨우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미 매겨져 있는 서열, 바뀌지 않는 통념 등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한 중등교육의 많은 학생들은 줄 세워질 것이고, 이 속에서 선택된 몇 명 이외에 나머지는 들러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시장화의 논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온 신자유주의가 1990년대 한국 사회에도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출현하는 배경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는 다르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 대학교육은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경제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속에서 국가와 기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의 민영화 논리, 선택의 논리, 수요자의 논리, 경쟁의 논리를 내세운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대학교육은 거의 사학에다 맡겨 놓은 실정이다. 해방 이후 수익자 부담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사립대학을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준인 76%까지 인가해 왔다. 국가가 떠맡아야 할 많은 재정적 부담들을 개인들에게 맡긴 것이다. 법적으로 재단의 독점적 학교 운영을 보장받은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교육 환경은 외면하면서 교편을 침해하고 각종 운영비를 통해 대학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사립대학이 대학의 본래 기능인 상아탑의 목적을 수행하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학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학이 돈벌이의 수단이라는 사실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학생 수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서구처럼 대학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혹은 많은 부분 재정 지원을 해 주던 곳에서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과, 사립대학이 대학교육의 많은 부분을 맡아 왔던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 쪽에서 불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논리는 대학의 학문조차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맡겨 버리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인문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한 사회를 지탱하고 받쳐 주는 구실을 하는 기초 학문이다. 그런데 얼마전 모 대학에서 철학과에 학생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과를 폐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적어도 대학이라면 인문학에서 교양인 철학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과에 학생이 들어오지 않으니, 폐쇄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은 철저히 시장화의 논리이며, 상업화의 논리이다. 대부분 사회에서 쓸모 없다고 여겨지는 인문학 강의는 폐강을 당하거나 적어도 폐강 위험에 처해 있다. 시장의 논리만을 강요하는 대학은 상업적 직업 학교로 전락할 것이다. 상업적 직업 학교로 전락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대학을 직업 탐색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오직 직업만을 위하여 그들의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에 유리한 교과목만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학점, 졸업, 자격증, 취업 등에 더 관심을 가진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만이 존재하게 되는 곳에서 학문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미 정해진 서열화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인문학의 기본인 철학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대학에서 사라지고 있는 곳, 진정한 지성인보다는 기능인을 길러 내는 직업훈련소……. 이것이 지금 2001년의 우리 대학의 모습이다.

“

대학의 서열화와 시장화는 대학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데 걸림돌 역할을 한 것이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입시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
 뿔뿔히 흩날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들은 나름의 독자적 연구 능력을 갖추고,
 학문 성과를 사회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Ⅲ. 중등교육과 대학의 올바른 자리 매김

대학간의 서열이라는 것이 학교들의 교육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교수들의 연구 분야나 실적, 대학의 사회적 기여, 교수 대 학생의 비율 등 학문과 교육상의 실질에 따라 매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체계의 수능시험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대학 스스로가 자기의 서열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러한 뿌리깊은 학벌 위주의 사회가 대학의 서열화를 초래함에 따라 중등교육은 오로지 대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치부된다. 특히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과정이 '입시' 하나로 결정됨에 따라 학교교육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곧 지식교육화 되면서 아이들의 적성이나 흥미는 대학에 가서 찾아야 할 무엇처럼 여겨졌다.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그것은 대학 가서나 해' 라는 말은 우리 교육 현상이 어떤지를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행 학교 교육은 인성 교육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학교 교육의 결과는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도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는 '많이 배우신' 고위 관료들의 뻔뻔함 속에서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기초 질서를 지키려는 자세,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정의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가고 난 뒤에 배울 것들이다. 18년 동안을 다른 사람과 같이 더 붙어 사는 교육이 안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간의 잣대가 서울대학교 몇 명 보낸 것으로 그 학교를 평가하려고 할 때 인성 교육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오로지 일등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교육적 가치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 교육이 지식교육화 되는 속에서 교육적 가치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과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진로 교육이나 직업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진로나 직업 교육은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찾아가는 중요한 교육이다. 그런데 지금 중등학교에는 이런 교육이 배제되어 있다. 진로상담부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 교사가 없으며, 신입생들에게 실시하는 인성 적성 검사는 형식적으로 하는 의례적 행위로 실시된다. 수능 점수 일점이 중요한 때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가? 등의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로 한가한 사람으로 바보 취급받기 좋다. 이런 상황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고 대학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 대학의 개혁을 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연계시켜서 논의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IV. 맺는 글

대학의 서열화와 시장화는 대학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데 걸림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입시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들은 나름의 독자적 연구 능력을 갖추고, 학문성과를 사회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은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곳으로 자리잡아야 하고, 대학은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위상을 전체 학교교육의 틀 속에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이 올바르게 자리 매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대학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처럼 대학이 졸업장 받는 곳,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적'을 두는 장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를 위해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야 하는 것

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이다.

다음으로 대학교육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인 전문 직업인 교육이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 대학교육은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적 훈련을 요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 직업인을 길러 내는 목적과 한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 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교육이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는 학술 논문이나 양산하는 곳이 아님을, 사회의 진보에 대한 전망과 희망 없이 무비판적으로 지식 기능공을 양산하는 곳이 아님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교육하는 곳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다져야 한다. 교육하는 공간은 교육의 가치가 추구되어야지 경제적 가치로 바라보아서는 제대로 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국가는 장기적인 국가의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대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과 뒷받침,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

조옥준

중앙대 교육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성동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교육정보화 담론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화 정책의 학교 시장화와 교사 노동의 탈속련화" 등이 있다.